

入島祖全羅 康永監司公의 歷史的 考察

입도조 강영감사공(康永監司公)은 득성조(得姓祖) 관정대훈 공신 교화성사(教化聖師) 강후(康侯)공의 88세손이요, 시조(始祖) 성골장군(聖骨將軍) 국조대왕(國祖大王) 강호경(康虎景) 공의 21세손이다.

한편 이태조(李太祖)의 현비(顯妣) 신덕고황후(神德高皇后)의 사촌 오빠이며, 자헌대부행전라도감사(資憲大夫全羅道監司) 재임 중(在任中) 조정은 왕위계승(王位繼承) 문제로 신덕고황후 소생(所生) 이방번(李芳蕃)과 이방석(李芳碩)이 피화(被禍)를 당하자 근친인 강영(康永)은 위해(危害)를 모면하기 위하여 1402년(壬午) 맏아들 귀존(貴尊)을 비롯한 가족(家屬)을 충청도 보령에 남겨 두고 제주도로 피신(避身)하였다.

현해타를 건너 함덕포로 입도(入島)하여 정부인 제주고씨(貞夫人 濟州高氏)를 배필로 맞이하여 정(禎), 복(福), 만(萬)의 세 아들을 낳고 향인(鄉人)들에게 충효(忠孝)의 정신과 예의범절을 가르치니 그가 미친 학문적 영향과 사상은 이 땅에 과급 되는 바 적지 않았다.

고려사에 보면 강영(康永)은 1359년 기해(己亥) 공민왕8년 홍건적이 1차 침입하였을 때 상호군(上護軍)으로서 적을 격주한 공으로 기해홍적격주이등공신(己亥紅賊擊走二等功臣)에 서훈되었다. 고려 공민왕 10년 1362년 홍건적(紅巾賊)이 2차 압록강을 건너서 북면에 침입하고 경성을 점령하였을 때 침입한 경성(개성)을 수복하는데 공을 세워 수복경성일등공신(收復京城一等功臣)에 서훈되었다.

1373년 강계만호(江界萬戶)로 역임하였고 「우왕(禡王) 2년 1376년(병진)에는 논산(옛지명:연산) 침범한 왜구를 최영, 최공철, 박수연 등과 더불어 조전원수(助戰元帥)로서 홍산(鴻山)에서 싸워 적을 대패시켰다. 1377년 왜구가 강화에 침입하자 나세府事와 조사민 이원계 등과 더불어 격퇴시켰으며, 이어 왜구가 영광,

장사, 해주, 평주 등에 침입하자 원수(元帥)로 여러 장수들과 함께 적을 격주시켰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1377년 丁巳에는 신천강씨 평양파 종인(宗人) 한학자 강여헌(康澗憲) 계암당(桂菴堂)이 지필한 「신천강씨보(信川康氏譜) 유명조선국신천강씨정승명현록(有明朝鮮國信川康氏政丞名賢錄)」 16~17쪽에 보면 강윤휘(康允暉)님의 맏아들 강영(康永)은 과갑한림학사(科甲 翰林學士)와 경기도(京畿道), 평안도(平安道), 경상도(慶尙道), 함경도(咸鏡道), 사도감사(四道監司)를 역임했다는 내용이 명기된 것으로 보아 전라도(全羅道) 감사까지 포함하면 五道監司를 역임하였다. 이와 같이 원수(元帥) 강영 감사(監司)는 강직한 성품과 불의와의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정의감이 강한 문무관(文武官)으로 그 위세가 당대에 떨쳤던 충신(忠臣)이다.

강영 감사가 낙향할 무렵 고려의 유신(儒臣)으로 충절이 귀감이 된 김만희(金萬希) 공과 이미(李美) 공과 한천(韓蕺) 공과 더불어 제주에 입향한 四大賢人으로 일컫고 있다.

신천강씨 입도조 강영감사공의 묘소는 1413년 태종14년 癸巳년에 서거한 후 1422년 임인(壬寅) 세종4년 지석을 숨긴 뒤 516년이 되는 1937년 정축(丁丑) 음력 3월 초 3일 18대손 용범(用範)과 정생(丁生)은 조천읍조천리119번지 방묘(方墓)앞 제절땅 속에서 기건 목사(奇虔 牧使)가 서술한 지석(誌石)이 발현(發見)되었다.

제주목사 청파(靑坡) 기건(奇虔) 공이 쓴 지석에는 「신천강영감사(信川康永監司)의 행적과 위업이 새겨져 있음」을 알게 되어, 후손들은 정성을 모아 수묘(修墓)하고 조천서원상도사(朝天書院尙道祠)를 지어 득성조(得姓祖)와 시조(始祖)와 중시조(中始祖)와 정숙공(靖肅公)과 입도조(入島祖)의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5월5일 제향(祭享)을 드리고 監司公墓祭도 奉行하고 있다. 이와 같이 祖上님을 경배하고 追慕하며 愛族團結에 일로 매진하는 것은 천장지구(天長地久)할 것이다.-

(信川康氏 濟州道 宗親會長 漢齋 康政統 識)